

뉴진스, 첫 EP 첫날 판매량 26만장... 걸그룹 데뷔음반 기록

르세라핌 '피어리스' 17만장, 이전 최고 기록
3개월 만에 경신...같은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뉴진스(New Jeans)'가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의 신기록을 연신 갈아치우고 있다.

9일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뉴진스가 전날 오프라인에 발매한 데뷔 앨범 '뉴진스(New Jeans)' 실물 음반은 당일에만 26만2815장이 판매됐다.

2019년 9월 이후 발표된 아이돌 그룹의 데뷔 앨범 중 발매 1일 차 최다 판매량이다. 뉴진스는 당일 한터 음반 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특히 뉴진스는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의 발매 첫날 판매량 신기록을 썼다. 첫 앨범의 1일 차 판매량이 20만 장을 넘는 걸그룹은 뉴진스가 처음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르세라핌'이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지난 5월2일 발매한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는 역시 한터차트 기준 당일에만 17만6861장이 팔렸다. 당시 역

대 걸그룹의 데뷔 음반 중 1일 차 최다 판매량이었다. 뉴진스가 3개월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뉴진스'는 예약 판매 3일 만에 선주문 44만장을 기록했다. 선주문량이 대부분 발매 일주일 만에 팔린다는 걸 감안하면, 르세라핌의 초동(음반 발매 일주일 판매량) 30만장 기록도 역시 깰 것으로 보인다. 르세라핌의 이 기록 역시 역대 데뷔 걸그룹 최고 성적이었다. 또 르세라핌의 '피어리스'는 최근까지 누적 판매량 41만장을 기록했는데 뉴진스가 이 기록 역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한 하이브(HYBE) 레이블즈에 속해 있다. 르세라핌은 쏘스뮤직,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다. 데뷔 시기가 비슷한 만큼, 앞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뉴진스는 지난 1일 음원 플랫폼에 먼저 공개한 데뷔 앨범 '뉴진스' 음원으로도 인기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주간 차트를 점령했다.

타이틀곡들인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가 최신 빅스 주간 차트(집계기간 1~7일)에 1, 2위로 진입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쿠키(Cookie)'는 11위, 수록곡 '허트(Hurt)'는 15위에 오르는 등 데뷔 음반에 수록된 4곡 모두 20위권에 안착했다.

지난 8월 첫째 주 주간 차트(집계기간 8월 1~7일)에서는 '어텐션'이 4위, '하이프 보이'가 29위에 자리했다. '어텐션'은 멜론 주간 차트(집계기간 1~7일)에 12위로 진입했다. '하이프 보이'는 29위, '쿠키'는 90위를 기록했다.

또 '어텐션'은 이날 바이보 '오늘 톱 100' 차트 3위에 올라 자체 최고순위 기록을 경신했다. 이 곡은 지난 2일 100위로 해당 차트에 진입했고 다음 날에는 무려 77계단 상승한 23위에 자리한 뒤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출연한 음악방송 영상들도 화제다.



엠넷 '엠카운트다운', KBS 2TV '뮤직뱅크', SBS TV '인기가요' 네이버TV 채널에 업로드된 뉴진스의 무대 영상은 당일 출연진 중 가장 많은 조회 수를 자랑한다. 특히,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하이프 보이' 무대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약 11만 뷰에 달했다. '어텐션' 무대 영상의 조회 수는 약 8만 건이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가 아침차게 선보인 새 걸그룹이다. 민지(18)·하니(18)·다니엘(17)·해린(16)·해인(14) 등 다섯 멤버로 구성됐다. 민 대표가 멤버 선발부터 음반 기획, 프로듀싱, 비주얼 디렉팅 등을 총괄했다.

아이돌 팬덤과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다.

'헌트' 예매량 1위... '한산' 이길까

예매 관객수 10만명 육박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 '헌트'가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예매 관객수 1위를 달리고 있다. '헌트'는 올해 여름방학 성수기에 개봉한 영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한산:용의 출현'과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헌트'의 예매량은 9일 오전 8시30분 현재 9만6194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헌트' 예매 관객수는 이날 중 무난히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위는 예매량 8만2877명인 '한산:용의 출현'이다.

앞으로 여름 극장가는 '헌트'가 '한산:용의 출현'에 도전하는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일 가장 먼저 개봉한 '외계+인 1부'(150만명)가 사실상 극장에서 내려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지난 3일부터 관객을 만난 '비상선언'(149만명) 역시 사실상 흥행



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황이다. 이에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5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한산:용의 출현'과 '헌트'가 여름 성수기 최후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트'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안기부 내에 침입한 간첩 '동림'을 색출하기 위한 두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안기부 요원 '박평호'를, 정우성이 또 다른 요원 '김정도'를 연기했다. 이밖에 전혜진·허성태 등이 출연했다.

몬스타엑스, 이전 장수그룹...스타쉽 5인 재계약·6인 팀활동 계속

3세대 K팝 주요 그룹

3세대 K팝 주요 그룹 '몬스타엑스'가 장수그룹으로 접어들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8일 "최근 몬스타엑스의 멤버 서누, 민혁, 기현, 형원, 주현 5인과 재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른 멤버 아이엠(L.M)은 스타쉽과 전속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그룹 활동은 함께 계속 이어간다.

스타쉽은 "몬스타엑스, 그리고 몬베베에 대한 애정은 6인의 멤버 모두 한결같이 아이엠과는 향후 그룹 활동은 변함없이 함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엠이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이엠의 새로운 활동과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데뷔 7주년이 지난 K팝 장수그룹들 중에선

소속사가 달라도 팀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K팝 2세대 간판 걸그룹 '소녀시대'가 대표적으로, 멤버 8명 중 3명이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아니지만 5년 만인 최근 정규 7집 '포에버 원'을 발매하고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보이그룹 중에선 올해 데뷔 8주년을 맞은 '갯세븐'이 있다. 이 그룹의 멤버들은 각기 다른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최근 완전체 앨범을 발매하고 팬들과 만났다.

근래 새 음반은 발매하지 않았지만 '신화' 'god' 역시 팀을 유지하며 신곡 발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14일 '무단침입'(Trespass)으로 데뷔한 몬스타엑스는 계단식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 2020년 초 발표한 미국 첫 정규 앨범 '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 5위를 차지했다. 작년 말 발매한 두 번째 미국 정



규앨범 '더 드리밍(The Dreaming)'은 '빌보드200'에서 21위에 올랐다.

또 2020년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에서 펼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홍보대사로 선정되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다.

서누가 지난해 7월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5인 체제로 활동했다. 한 달 여간의 휴식을 마쳤고 단체·개인 활동 등을 준비 중이다.

이현이,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MC



모델 이현이가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MC로 함께 한다.

9일 SBS미디어넷에 따르면, 이현이가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대회 MC와 더불어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넥스트 레벨'(가제, 이하 넥스트 레벨)의 MC로도 활약한다.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올해 29회를 맞이했다. 모델 콘테스트가 아닌 대규모 축제로의 도약에 나선다.

본선 대회 전 방송되는 '넥스트 레벨'은 본선 대회 티켓을 거머쥔 예비 슈퍼모델들이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다.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 200만명 돌파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가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21일만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유니버설픽처스 등에 따르면, '미니언즈2'는 9일 오전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199만5389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2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미니언즈2' 포함 8편이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유일하다.

이 작품은 2015년에 나온 '미니언즈'의 후속작이다. 최고의 악당만 쫓아다니는 미니언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 시리즈는 이번 작품에서 미니언 세계관의 최고 악당 '그루'와 미니언이 처음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미니언즈2'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미국에서만 3억3457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국 외 국가에서 4억2442만



달러를 벌어들여 총 수익이 7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블랙핑크, 150만명 규모 월드투어...10월 서울 출발



그룹 '블랙핑크'가 약 150만 관객 동원을 예상하는 대규모 월드투어를 돈다.

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오는 10월 15~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 4개 대륙 도

시를 도는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펼친다.

이날엔 월드투어 전체 일정 아닌 1차 지역 26개 도시 36회 차 공연 소식만 공개했다. 북미 지역인 앨리스, 휴스턴, 애틀랜타, 해밀턴, 시카고, 뉴어크, 로스앤젤레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정이다.

연말엔 유럽을 장식한다. 런던, 바르셀로나, 쾰른,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이다. 이후 블랙핑크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콕, 홍콩, 리야드, 아부다비,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가오슝, 마닐라, 싱가포르, 멜버른, 시드니, 오를랜드 등에서 현지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YG는 "아레나뿐 아닌 스타디움 투어를 설계하고 기획했다"며 "각 분야 최고의 스태프들과 최고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팝 걸그룹으로는 최대 규모다. 앞서 K팝 간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코로나 19 직전인 2018년과 2019년 '러브 유어셀프'와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를 합쳐 세계에서 총 62회 공연해 206만2000명을 끌어모았다. K팝 역대 최대 규모 투어다.

블랙핑크 역시 만만치 않은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멤버들은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멤버들은 "선공개곡부터 정규앨범 그리고 투어 소식까지 연달아 전하게 돼 행복하다"며 "우리 블랙핑크(팬덤명)에게 항상 감사하다. 팬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블랙핑크는 월드투어에 앞서 오 19일 오후 1시(한국시간)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9월에는 정규앨범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발표한다.

소녀시대, 5년 만에 완전체 음방 출연...하나가미·아수피 안무 본다

내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14일 SBS TV '인기가요' 출연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가 5년 만에 완전체로 음방 방송에 출연한다.

8일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오는 11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14일 SBS TV '인기가요'에 출연한다. 정규 7집 '포에버 원(FOREVER 1)'의 동명 타이틀곡을 부른다.

'포에버 원'은 역동적인 전개와 힘찬 멜로디가 돋보이는 팝 스타다. 소녀시대 멤버들의 시

원한 가창이 마치 페스티벌 현장에 있는 듯한 신나는 분위기를 선사한다.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더불어 이번 퍼포먼스는 세계적인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Kyle Hanagami)와 아수피(ASUPI)가 함께 작업했다.

SM은 "밝고 희망찬 곡 분위기와 어우러진 소녀시대의 청량한 매력을 만날 수 있으며, 곡명에 맞춰 숫자 '1'을 형상화한 포인트 손동작



들이 더해져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